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9월 18일(금)  
(윤력 8월 2일)  
Пятница  
18 сентября 2020г.  
№ 37 (11690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9월1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8주년 기념 행사들이 펼쳐졌다. 이날 시민행진에 1200여 명이 참가했고 사할린주한인 협회측에서는 약 80명이 행진했다. (사진: 사흐콤 통신사)

## 사할린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시 폐지

사할린주 주민들이 사할린으로 돌아올 때 더이상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휴가나 출장차 다녀오는 길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에 대한 권고가 폐지됐다. 이에 해당 지침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서명했다.

지난 6월부터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에서 사할린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제시 방침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진 증명서 제시와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입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할린주의 감염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며, 환자 2/3가 퇴원했다. 매일 확진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없다. 휴가에서 돌아온 사할린과 쿠릴 주민 중에 확진자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 의료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라디미르 유슈크 사할린주 부수상이 밝혔다.

사할린에 거주 등록이 되지 않은 승객들은 사할린에 입도시 디지털 패스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발급일로부터 3일간 유효함을 강조했다. 예외로 복잡한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검진 증명서는 5일까지 유효하다.

디지털 패스 등록을 위해 dp.sakhalin.gov.ru 사이트에 요청해야 하며 핫라인 전화번호 1-300 (7 추가 입력) 과 8(800) 300-65-03 (7 추가 입력)이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사할린 주지사, 1년 사업 보고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9월 15일 그의 연간 사업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주요 성과 및 우선적 방향과 목표를 주주마 의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과 일부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 의료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의 의료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보건 개혁 덕분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암과 중증 폐렴,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387명 이상의 환자를 구할 수 있었다. 이는 신속하고도 고품질의 진료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주 영상센터의 의사들이 다른 지방의 의료진과 상담을 한다는 점이다. 외래환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실속있는 보건소' 기획이 돕고 있어 새로운 작업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내 벽지에는 산부인과 의료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특수 차량망을 개선하고 있고, 중증 환자들은 의료 헬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신속히 이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에서는 40대의 이동진료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5대를 올해 구입했고 고도 정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혁신적인 장비를 갖추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별도로 주지사는 코로나19와의 투쟁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팬데믹 초기부터 사할린 지역에서는 27만 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폐 단층촬영이 3만4천 건 이뤄졌다.

올 연말까지 주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건설

2026년까지 주는 사할린의 노후 및 붕괴 주거 건물 지역을 완전히 구제하고자 한다. 일년간 주택으로서 실제적으로 부적합한 평방미터는 2배로 증가해 22만6천 m<sup>2</sup>- 50만 m<sup>2</sup> 나 되는데 이는 최대치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 약100만m<sup>2</sup> 면적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3면에 계속)

## 단신

### 사할린의 사회복지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특별 급여로 4,100만 루블리

미하일 미슈틴 러시아 총리는 지역들 사회복지 근로자들에게 장려차 18억 9천만 루블리 지급 조치에 서명했다. 장려금은 코로나19 환자와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과 교대체제로 근무하는 사회적 기관(양로원, 장애인 기숙학교, 복지 형태 기관) 근로자들이 받는다.

앞서 러시아 연방 정부는 팬데믹 시기 특별한 노동 여건과 증가된 업무량으로 사회적 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했다. 사할린은 4월부터 이런 목적으로 연방 예산에서 6천만 루블리 이상을 받아 사할린주 사회복지기관 근로자 865명에게 지급한 가운데 이 지원 조치를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올가 만자라가 토마리 구역 시장으로 선출

9월 16일, 토마리 시의회 회의에서 올가 만자라가 토마리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14명의 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후보로 3명이 접수되었는데 올가 만자라 시장 임시 대행, 마리나 셰르쉬네와 지방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르게이 키셀료브 펜첸스코예 중학교 교장이다.

### 5.0지진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발생

9월 14일 밤, 사할린 시간으로 00시간 42분, 니콜스코예 마을(우글레고르스크 구역)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기록되었다. 지진 서비스 정보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사흐초르스크와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주민들은 5.0 진동의 강도를 느꼈다고 한다.

이후 사할린 시간 오전 01시 09분에는 푸르드노예 촌 5km 떨어진 곳에서 진도 4.6의 여진 기록, 진원 깊이는 10km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으로 이 지역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홉스크시, <한 가정에서>축제 준비

9월 19일(토) 홉스크시에서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 제4회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가 열린다. 행사는 정오 12시 수영장 부근 행사장에 시작한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강팔용 가수·<아리랑>무용단과 <에트노스>예술학교의 학생단, <루스키 테렘>현 러시아 민속 노래 앙상블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한식 요리 시식, 공예 활동교실도 준비하고, 씨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행사 중 하나는 뽕새(왕만두) 빨리 먹기이다.

## 새고려신문

##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 주한인협회 운영위 확대회의, 2021년 이후 영주귀국 문제 논의

지난 12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권자(운영 위 위원)는 20명이었다.

회의 의정에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3/4분기 사업보고,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타 문제가 올랐다.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의 3/4분기 사업보고는 간단했다.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하는 한 도시만 찾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일이 남았다. 올해 주한인협회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청년회 회원들은 이번에 전국 <오스트로와>포럼에 참가하고,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진행도 맡았다. 주한인협회는 여러 시 및 주 행사에 참가하고 이날 (9월 1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8주년 기념일 행사에도 적극 참가했다. 9월 19일에는 주한인회는 공동주최로서 홈스크에서 열리는 <한 가정에서>축제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9월 26일 연기된 광복75주년 행사 겸 러한 수교 30주년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열린다.

회의 두 번째 문제도 박순옥 회장이 발표했다. 그는 올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설명에 나섰다. 현재 대한민국 적십자가 이 법에 따라 한국에서 2021년 이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설명회를 갖고 영주귀국 희망자 조사에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미 영주귀국 조건 사항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한인협회 측에서 불만스런 점이 여러 개 있지만 크게는 2가지라고 발표했다. 하나는 <사할

린한인> 명칭과 관련돼 있다. 법에 따르면 "사할린 동포란 명칭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적혀 있다. 이걸로 제한하지 않고 "이들의 직계비속"이란 말을 추가해야 한다고 박 회장이 주장했다. 왜냐하면 현재 사할린한인 2,3,4세를 현재 한국 측에서 고려인으로 취급한 자세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영주귀국자가(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러시아 등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사항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 법에 따라 러시아 국민은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 양국 정부 간 협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그 전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귀국한 2세들은 국적 포기 각서를 쓰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다. 이들도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제2국적으로 받았다.

아직 특별법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사할린 동포들의 청원 사항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할린주 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 사할린주한인노인회 김종길 회장과 우리말방송국 김춘자 회장이 발언했다.

회의는 러시아어로 결의문을 완성한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해당 국회의원, 한국정부 부처에 보내도록 했다.

**(배순신 기자)**

대한민국 측에서 항상 러시아 정부가 사할린한인들의 이중국적을 거부한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중국적 관련 검색 결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본사 편집부)**

# 2020년, 러시아와 어떤 국가가 이중국적이 허용되나

러시아 헌법은 러시아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 제 62조에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적 문제로 러시아 이외에 일부 다른 시민권은 반드시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헌법에 따라 2020년에 러시아와 어느 국가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 둘째 국가에서 이중국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 이중국적과 제2국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섬세한 법률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이런 법률적 의미는 충분히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중국적과 제2의 국적은 전혀 다른 것이다.

러시아 법에 따른 이중국적은 러시아 국적자가 러시아가 이런 주제로 국제적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받는 것이다. 또는 어떤 국가의 국적자가 러시아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제2의 국적은 러시아가 국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게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핵심적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그리 복잡한가?

이중국적에 대한 두 국가 간 국제조약은 양국 간 시행되는 특별한 법적 제도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약에 2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두 국가 중 자신이 살고 있고 일하는 한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적시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이 사람이 어느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질 것인지 협약을 한다.

제2의 국적은 양국에서 각각 시민권을 가

진 사람으로 그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 받는다. 실제로 제2의 시민권이 그에게는 그리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법과 의무는 양국의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2개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도 부과된다.

만약 어떤 의무가 양국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면 (그가 두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경우) 2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2020년 러시아는 어느 국가와 이중국적을 체결했나?

2020년 현재 러시아는 한 국가와 이중국적을 체결했다. 바로 타지키스탄이다. 타지키스탄 공화국과는 이미 1995년에 협정을 맺었다.

또 다른 경우에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시민권은 둘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들 국가 중에 시민권자의 국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첫째 민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2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경우 한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

러시아 법은 이중국적 획득에 완강하지는 않다. 다만 요구하는 것은 타국가의 시민권을 얻는 것에 대해 본국에 통고해야 한다.

반드시 통고를 하는 이유는 러시아에서 해외 국적 보유자는 몇몇 권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2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공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정부기관과 법 집행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고 언론기관 설립자로 나설수 없다 등등.

**(러시아 인터넷사이트 자료들에서)**

# 이모저모

## '역사의 수호자' 전람회 전설적인 사할린 사람들 소개

9월13일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는 이색적인 측면에서 신화적이고 실제적인 전람회의 양상을 띤 '역사의 수호자. 제1부. 전설' 전시회가 열렸다. 이는 박물관의 물품 조사와 유형수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추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학술·계몽 기획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사할린 섬' 책 중에 쉬스마로브 선장과 체호브가 앉았던 돌에 대한 전설, 홀 전체에 배치된 개인정보 서류와 유형수 후손들의 역사를 담은 동영상 등 많은 이야기들이 방문객을 기다린다.

"4년간 70여 개 이상의 주제, 30개의 사진 인터뷰, 100여 개의 사라지는 기억들에 대한 탐구로 축적된 자료들이 '추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기획의 중간 결산으로 전시회가 열렸다. 박물관의 전설과 꾸며진 전설들이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전시물 속에 얹혀 있어 우리는 철저히 연구해야 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카미스' 박물관의 시스템(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과 우리 전시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의 학술·계몽과 만나 주크 실장이 말했다.

## "Хранители истории" знакомят сахалинцев с легендами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13 сентября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Хранители истории. Часть I. Легенды", которая раскрывает мифические и реальные аспекты экспонатов с необычной стороны.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му проекту "Листая страницы памяти", направленному на поиски музейных предметов и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й бывших ссыльнопоселенцев.

Легенды о штабс-капитане Шишмареве из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и камне, на котором сидел Чехов, переписные карточки, размещенные по всему залу, видео, на котором записаны истории потомков каторжа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истории поджидают посетителей. — Четыре года исследований, более 70 предметов,

свыше 30 портретных интервью, около 100 уходящих воспоминаний — данный накопленный материал стал промежуточным итогом проекта "Листая страницы памяти", который и стал этой выставкой. Легенды музейные и легенды выдуманные переплелись во многих экспонатах,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экспозиции. Их нам пришлось досконально изучать. Об этом вы можете узнать из музейной системы "Камис" и нашей выставк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м отделом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Анна Жук.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0 октября, сообщает музей.

## 호무토워 바위산 300여명이 정복

'부메랑'클럽은 유·청소년 관광센터와 사할린의 암벽 및 등산 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관광청의 지원 속에 전통 암벽 등반 축제를 열었다. 마침 날씨도 쾌청하여 호무토워 암벽 등반에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침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줄을 이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암벽 도전자들은 등반가로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크지는 않아도 높은 암벽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번 다양한 난코스에 안전 등반을 하겠다고 도전한 사람들은 약 300명이 된다고 '부메랑' 클럽이 전했다. 참가자들을 위해 9개의 다양한 난이도 코스를 따라 활동이 이뤄졌다. 축제 참가자들에게 밧줄과 카라비너(밧줄 고리),안전과 장비에 따른 지침들을 제공했다.

동료들과 등반하는 가운데 시냇물 소리, 즐거운 대화, 파이와 함께 전통차가 곁들여졌다.

1년간 암벽 등반 활동은 지속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 아동은 '부메랑(전화8-914-086-75-50 (크세니아))' 활동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이상 청년과 성인은 사할린 암벽 등반 및 등산 단체 전화8-924-188-66-30 (알렉산드르)로 문의 가입.

## 300 человек покорили хомутовский скальный массив

Клуб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ообществом альпинистов и скалолазов остро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провел традицион-

ный с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Погода выдалась отличная, и поток из желающих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на хомутовском скальном массиве не заканчивался с самого утра до окончания фестиваля.

Все желающие, от малышей до взрослых участников,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скалолаза и преодолеть не только свои страхи, но и взять хоть и небольшую, но высоту. Жаждающих совершить безопасный подъем по трассам разной сложности в этот раз было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сообщили в клубе "Бумеранг".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работали 9 скалолазных трасс различной сложност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ожидали не только веревки, карабины, инструктажи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наряжение. Атмосферу похода с друзьями создавали шум ручья, веселые разговоры и традиционный чай с пирогам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можно продолжить заниматься скалолазанием. Дети старше 12 лет могут записаться для занятий в "Бумеранг" по телефону: 8-914-086-75-50 (Ксения), а молодежь старше 18 и взрослые — в сообществе альпинистов и скалолазов Сахалина по телефону: 8-924-188-66-30 (Александр).

## '국민 크로스경주' 대회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2020 - 국민 크로스경주' 전 러시아 달리기 날이 사할린주에서 개최된다.

전통 육상 체육대회는 9월 19일에 열리며 경기 개막식은 9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 광장에서 개최하고, 첫 경기 참가자들은 10시에 이곳에서 출발한다.

사할린 주민들은 사고 대비 의료 및 생명 보험증과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지참해야 마라톤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는 연령별, 거리 종목별로 치른다. 2010년생 이하 연령의 아동들은 1000미터 코스에서 달리고 2000년생 이하 연령의 청소년과 1999년생 이상 연령의 성인은 4km 에서 경기를 치른다.

여자 6km종목에서는 2000년생 이하 연령의 여성이 참가하고, 8km종목에는 1999년과 그 이상 연령의 여성 및 2000년생과 그 이하 연령의 남성이 참가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 킨 제작 <사할린에 핀 해당화>영상, KBS 열린채널에서 최우수상 수상

한국 KBS방송사의 '열린채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있다. 한 해 열린채널에서 방영된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는 킨(KIN)이 제작한 <사할린에 핀 해당화>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 KBS의 '열린채널'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영상을 방영 신청하게 되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정하여 KBS1 열린채널 시간에 방영하는데 시청자 주간 중 시청자위원회가 방영된 영상들 중에서 <사할린에 핀 해당화> 작품이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들이 잘 알고 있는 KIN(지구촌동포연대) 민간 단체가 <사할린에 핀 해당화 : 우리가 만난 사할린 동포들, 15년의 기록>을 제작해 2019년 11월 29일 '열린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영상 연출, 각본, 내레이션은 최상구 사무국장이 맡았고, 영상 촬영·편집 제작에는 김지운 감독이 담당해 이들의 은근과 끈기로 15년간의 기록을 영상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최상구 사무국장은 "2004년부터 꾸준히 사할린 동포들에게 곁을 내고 함께 하고자 했던 킨 멤버들이 있었기에 이 영상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 수상소식이 동포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시상식은 9월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상패가 9월 11일 킨 사무실로 도착했다. 상패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위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사할린 동포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인식을 환기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15여년 간 동포들과 함께 사할린한인 문제를 고민하고 돕고 있는 킨 단체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제작·나누기 운동,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추진 협력, 사할린한인 역사회복을 위한 사업, 사할린 동포 어르신 구술 작업 등 수많은 작업에 헌신해오고 있다.

(배순신 기자)

# <21세기에서 안톤 체호브의 '사할린 섬' > 국제 학술회의 진행



9월 14 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안톤 체호브의 <사할린 섬>책 박물관에서 <21세기에서 안톤 체호브의 '사할린 섬' >국제학술회의가 기초회의로 막을 열었다. 제7회 학술회는 프로그램에 따라 전원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기초로 하여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논문 발표에 사할린의 학자들을 비롯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알타, 텔리호브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 참가한다. 해외에서 초청된 참가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일본의 학자들도 온라인 영상으로 행사에 참가한다. 참가자 수는 60여 명이다.

학자들은 사할린 이전 시대의 생활과 러시아 고전 창작, 사할린 섬의 여행 동기, 21세기 체호브적 금융주의의 현상, 작가의 유산과 기타 다른 문제들을 논의한다.

«30년 전 처음 국제 체호브 학술회가 개최된 이래 5년마다 열리는 학술회는 전통이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에 도시와 행사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포로나이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 티모브스코예 구역 키롭스코예 마을의 행사장에서 전통 분과별 회의를 비롯해 전시회, 도서 발표회, 세미나, 주제별 만남, 다른 행사가 조성된다.»고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의 예브게니아 피르소와 관장이 밝혔다.

분과별 회의는 코르사코브, 돌린스크에서 진행했고 도시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역사 향토 및 언어학 세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주내 학술회가 진행되는 동안 6개 전시회가 열렸는데 첫 전시회는 <역사의 수호자들. 1부. 전설>이란 주제로 9월13일 17시에 '사할린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열렸고 다음 러시아 중앙박물관인 바르후신 국립극장 박물관과 달 국립 러시아 문학 역사 박물관의 전시회가 열렸다.

학술회 행사 일환으로 체호브 및 체호브 시대를 주제로 한 사할린의 화가인 타마라 코롤료와와 나탈리아 키류히나의 전시회도 열렸다.

학술회 기간에 체호브센터에서 연극 공연도 이어진다. 9월 15일에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공연에서 <주교> 모노 연극, 9월 19일에는 사할린 인형극장에서 <변덕> 단편 연극도 공연한다.

<21세기에서 안톤 체호브의 '사할린 섬' > 학술회는 체호브 탄생 160주년, 그가 사할린을 여행한 지 130년, <사할린 섬> 책 별도 출판한 지 125주년 기념하여 사할린주 문화 고문서부의 주최 아래 진행된다.

(본사기자)

(사진: <사할린 섬>책 박물관 제공)

# 사할린 주지사, 1년 사업 보고

## (1면의 계속)

주민들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주택에서 정착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 주택은 건축 단계에서 건축 소유주에게서 분양을 받고 건축회사의 작업 질과 속도가 향상되도록 참여하게 된다.

그 동안 사할린주에서는 매년 임대 목적의 주택 물량이 새로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주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주에서만 <극동 용자>에 따라 700여 가구가 부동산을 매입했고 올 연말까지는 1300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젊은 전문가, 학자, 공공 예산 분야 근로자들이 받는 사회적 인증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산할 경우 가정에 특별 지급액을 제공해 이것으로 담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회성 지원은 총50만 - 200만 루블리아다.

## 공공주택사업

'깨끗한 물'기회를 사할린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떠안고 있다. 2021년에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와 파루스노예(티몹스코예 구역), 위스크레센스코예(아니와 구역)에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건설을 한다. 제일 먼저 오하시 지역과 고르노자위드스크(네벨스크 구역)를 정비하고, 포로나이스크에는 정수처리장이 건설되었으며 흙스크에는 상수도관 본선이 건설되었다. 아니와와 코르사코브는 작업 중이다.

전반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2150건을 처리했다. 왈레리 리마렌코는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여 드론을 이용해 무단 쓰레기 매립지를 탐색해준 청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또한 화물 운송 예코택시의 운행, 전체 쓰레기 분리 및 처리 시스템 가동,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고체 폐기물 처리장이 조만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 가스화 사업에 있어서 2019년에 730 가옥이 가스로 전환해 이들의 관리비에서 4천 루블리를 절약하게 되었다. 올해는 3천5백 가구의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한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마을에는 공급되는 연료유보다 저렴한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새로운 연료로서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한다.

## 사회보호 및 교육

사할린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보장 제도는 러시아에서도 우수해졌다.

이런 성과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특별히 주민들을 위한 이러저러한 지원정책에 정부의 제안을 신속하게 따라준 두마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실질적 임금은 2% 인상되었고 최저 임금은 10% 올랐다.

수천 명의 빈곤층이 사라지고 자녀를 둔 가정과 저소득층에게 주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로 고령세대를 위해 복지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복지카드 로 문화 및 체육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점과 약국에서 물품 구입 시 할인 받을 수 있고 고령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별도로 정부의 사업 방향은 저렴한 가격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할린주에서는 사회적 상점망이 발전하고 있어 여기서 평균 시장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브랜드 상품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자들이 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잘 조성되어 그 덕에 상품의 현 시세가를 추적해 저렴한 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첫째로 교육과 직업의 전문화이다. 새로이 시행된 것 중 하나가 사할린 국립대학의 '복수 전공' 프로그램으로 이는 극동 멀티대학 창설의 첫걸음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정부에게는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 과제가 놓여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를 건립하고 있다. 1년 간 4개 교육기관 -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달네예, 루고위예의 발달장애 아동학교, 오하의 툰고르 마을의 유치원 - 이 문을 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4개 학교에는 추가 시설이 건설되었고 아니와의 제 1학교는 확장 및 재건이 이뤄졌으며 모든 교육기관에는 현대적인 장비들이 갖추어졌다.

앞으로 사할린과 쿠릴에 26개의 학교가 건설될 전망이다. 또한 중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전문인들을 위해 발전을 위한 새로운 매개체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사할린주에서 개최될 아시아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Азия) 결승전이다.

## 교통 및 도로

사할린주에는 도로 공사의 고질적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다. 가장 문제되었던 노선의 하나인 유즈노사할린스크 - 오하 구간이 연방 소속의 도로가 된다. 이전에 이 구간을 위해 배당됐던 자금은 주 정부가 지방 주요 도로구간 일부 공사와 개건에 투입한다.

"사할린의 도심과 마을에 양질의 도로가 없고 도로 상황 수준도 낮으며 지방도로의 1/3만이 포장돼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약 60%다. 러시아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포장된 도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700km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 1천억 루블리가 든다."고 주지사가 언급했다.

주는 항공 및 철도 교통과 해상 통신 분야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성취했다. 사할린과 쿠릴 구간 새로운 비행장이 생겼으며 모스크바행 노선이 추가로 운항되고, 저렴한 항공권 문제도 해결되었다. 사할린에서 일본식 철도를 러시아식 철도 표준에 맞춘 후 '오를라니'라는 새로운 철도버스도 생겨났다. 와니노- 흙스크 구간은 신속하게 추가 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 사할린주의 운송세는 30% 낮아졌고 차량 연료를 휘발유에서 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차량 연료 전환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증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가스 충전소망을 확대하고 있다.

## 투자 및 사업지원

사할린주가 투자유치 국내서열 30개 지역에 진입했다. 주지사가 세운 다음 도약단계는 이런 지표를 따라 러시아 우수 행정지역 10 순위로 오르는 것이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기업들과 함께 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위원회는 행정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획인 '나의 사업'과 '사업.사할린.온라인'은 기업가들에게 여러 문제들에 따른 적절하고 포괄적인 상담을 받도록 돕고 있다.

투자 목록의 개발과 실현은 사할린과 쿠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상응해 주 예산에도 새로운 자금이 확보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주는 올해 전반적으로 400개 업체들이 생성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분야 근로자 수는 2000명 이상 증가했다.

(주정부 자료들에서)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О термин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говорили на правлении РООСК

12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зал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более 60 человек, из них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 20 человек.

Первым на повестке стоял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РООСК за 3 квартал 2020 года. С отчетом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на вкратце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было проделано за это время: продолжена работа по программе «Здоровье»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успешно проведен историче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лагерь, активизирована работа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ел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лете «Острова»), РООСК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городских и обла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пример День города). РООСК готовится к проведению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Холмске 19 сентября. А 26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РООСК.

Вторым вопросом заседания стала информация по спец.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также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Еще раз, поясняя основные статьи закона,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о важ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нимания населением термин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ое несет в себе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но и смыс-

ловую нагрузку, определяющую дальнейш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целом».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седателям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также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ь разъясн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на местах.

В связи с предстоящей репатриаци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одчеркнула важность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обиваться этого на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обсуждении вопроса по спецзакону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СКЖ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Ким Ве Чери, подчеркнув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важность темы, поднятой президентом Пак Сун Ок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етко следовать линии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й РООСК. Ее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Ден Гир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Ури маль бансон» Ким Чун Дя.

Было решено разработать резолюцию, учитывающую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ах по Спецзакону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собрании было решено принять к сведению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организаци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в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ях по разъяснению основных статей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 также термин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готовить резолюцию собрания. (Наш корр.)

##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Конституция прямо разрешает россиянам иметь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Этому посвящена её 62-я статья. Однако из-за некоторых юридических нюансов наличие какого-то ещё гражданства, кроме российского,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считаться двойным. Разберёмся со всем этим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России – с какими странами разрешено в 2020 году по действующе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чем отличается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т второго.

### Что такое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чем о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второго

Для человека, далёкого от юридических тонкостей, этот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нюанс может выглядеть довольно парадоксально.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 это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вещи.

Двой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по законам России называется только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когда российский гражданин получает паспорт государства, с которым Россия заключи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оговор на эту тему. Либо гражданин та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обретает российский паспорт.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 это наличие паспорта какой-то из стран, с которыми у России подобного договора нет. Это также не возбраняется.

Так в чём же ключевая разница и для чего было так всё усложнять?

Дело в том, что при двойном гражданств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чётко прописывает детали особого правового режима, который действует на «двойных граждан». Например, в договоре может говориться, что человек с двумя паспортами уплачивает налоги в той из двух стран, где живёт и работает. Страны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в какой из них человек отбывает воинскую повинность и т.д.

Если речь идёт о втором гражданстве, то каждое из государств, паспорт

которых имеет человек, исходит из того, что он – именно его гражданин. Наличие второго паспорта не имеет для него никакого значения. Права и обязанности, которыми наделяется обладатель двух паспорт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такие же, как и у всех прочих граждан одного и втор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сли обязанности как-то вступают в конфликт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пример, человек обязан отслужить в армии и там, и там), разбираться с этим приходится только самому обладателю двух паспортов.

### С какими странами в России разрешено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2020 год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0 год есть всего одна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у России действует договор о двойном гражданстве. Это Таджикистан. Договор с этой республикой был подписан ещё в 1995 году.

Во всех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аджикистана, паспорт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ожет приобретаться гражданином России по законам второй страны. Какие-то из государств могут требовать отказа от первого паспорта, чтобы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их гражданство. В таком случае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лучить уже не получится, придётся выбрать какое-то одно.

Российские законы смотрят на получение втор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достаточно спокойно.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требуется – уведомить государство о получении паспорта другой страны.

Такое уведомл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из-за того, что обладатель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и ограничен в некоторых правах. Человек с двумя паспортами не может избирать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олжности, служи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быть учредителем СМИ и т.д.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з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 Школа "Этнос" внесла свою лепту в празднование 138-летия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жегодно, во вторую субботу сентября, из каждого уголка наш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произносятся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и теплые слова в адрес именинника - города Южно - 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т раз он отпраздновал свое 138-летие.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ую обстановку и ограничения, пожалуй,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значимо это событие, так как бархатный сезон и теплые денки на Сахалине способствуют праздничному настроению. А дл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снов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ать на площадках города и радовать дорогих зрителей сво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12 сентября 2020г. на площадке озера Верхне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праздничную программу «Именинный караван» представ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л оркестр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 его исполнении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аранжировке ансамбля «Терем-квартета» – «Bessame musho»,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По морю» и «Комарик» в исполнении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Солнцеворот».

Под аплодисменты зрителей творческую эстафету принял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Фиман», погрузив наших зрителей в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следом, кружась в танцах и песнях, продолжили свои выступления детские народные хоры «Ярмарка», «Цветень», «Вереск», «Иван – да Марья».

Под яркими теплыми лучиками солнца продолжили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фольклорные коллективы «Жар – птица» и «Солнцеворот», ансамбль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KGD», ансамбли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Ариран» и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улькотнори».

Удивительное сплетение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мотивов песен и танцев, звучание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е оставили ни одного зрителя равнодушным.

Ярко и зрелищно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финальная точка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Именинный караван».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й площадке озера Верхнее, совместно исполнили плясовую песню «Как за нашим за двором» фольклорные коллективы «Цветень», «Иван – да – Марья», «Жар – птица» и «Солнцеворот», сообщает на сайте школы «Этнос».



## Константин Сек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городского блиц-турнира по шахматам

34 участника собрал блиц-турнир по шахмата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города. Они сыграли 13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контроль времени 3 минуты на партию + 2 секунды за ход).

В первом туре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только одна ничья, и турнирную таблицу возглавляли 16 шахматистов, одержавших победы. После второго тура количество лидеров уменьшилось вдвое. А после третьего 100% возможных очков имели только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и Игорь Чернцов.

В четвертом туре жребий усадил их за одну доску. Сек, игравший черными,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и стал единоличным лидером.

После шестого тура диспозиция не изменилась.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одержавший шесть побед подряд, на одно очко опережал Игоря Чернцова, от которого на пол-очка отставали Дмитрий Ден и Альберт Лим.

В седьмом туре лидер сыграл вничью с Дмитрием Деном, и Игорь Чернцов сумел сократить отставание до минимума.

После девяти туров у Сека было 8,5 очка, у Чернцова — 8. На два очка меньше набрали Роман Тихонов, Дмитрий Ден, Акылбек Кадыров и Виталий И.

Однако на финише острой борьбы за первенство не получилось. Игорь Чернцов в оставшихся партиях потерял 1,5 очка, что позволило Константину Секу досрочно оформить титул победителя.



Топ-5 сильнейших:

- Константин Сек — 12,5 очка;
- Игорь Чернцов — 10,5 очка;
- Альберт Лим — 9,5 очка;
- Дмитрий Ден — 9 очков;
- Владимир Юрьев — 8 очков.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показал Артем Хуснулгатин (7,5 очка, 9-е место),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 Виталий Елизарьев (7 очков, 13-е место), среди женщин — София Санжиева (6,5 очка, 19-е мест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просит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утвердить четверт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обратил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с просьбой безотлагательно утвер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в размере 7 трлн 800 млрд вон (6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дложе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для смягч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COVID-19.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уждающимся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д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олучив одобр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медленно приступит к исполнению специ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помочь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м категориям населения, включая безработных, молодежь,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самозанятых и частных торговцев,- отмет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она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утвердить бюджет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пятницу.

## РК избрана в комитет ЮНЕСКО по нематериаль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наследию

РК избрана членом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ЮНЕСКО по охране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 период с 2020 по 2024 год,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24 стран. За место в группе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РК конкурировала с Индией, и её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80 из 146 стран,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голосовании. После избрания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гут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суждении и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й, касающихся внесения в списки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была членом комитета в период с 2008 по 2012 год и с 2014 по 2018 год. Избрание на два срока подряд невозможно.

## Передача Сеулу контроля над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потребует времени

Для передачи Сеулу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в условиях войны потребуетс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командующий американским воинским контингентом в РК генерал Роберт Абрамс, выступая на онлайн-конференци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Центр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достигнутые в 2015 году министрами обороны двух стран, сложно выполнить без проверки осно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Генерал Роберт Абрамс отметил, что пока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лишь одну из трёх проверок операти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а две основные проверки осуществить не удалось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претило массовые акции,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на 3 окт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претило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акций,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консервативными силами на 3 октября по случаю Дня ос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в Полици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РК, силы правопорядка будут строго пресекать любые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ый запрещает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акций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10 человек. Аналогичные действия, предпринятые 15 августа,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в стране появилось 557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 Лишь один из 1.440 южнокорейцев имеет антитела к COVID-19

Лишь один из 1.440 южнокорейцев да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на антитела к COVID-19.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второго этапа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антитела, обнародованные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также, что в РК невозможен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инфекция перестаё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осле отмены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Сдерживающие меры –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замедл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е будет доступна эффективная вакцина,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Второй этап тестирования проведён в 13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 в период с 10 июня по 13 августа. Перв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антитела к COVID-19 обнаружены у одного из 3.055 человек. Однако тогда не тестировали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Тэгу, который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был основным очагом инфекции.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тестирова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45 жителей Тэгу. Уровень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сти антител в РК чрезвычайно низки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и городами. В Нью-Йорке он составил 24,7%, в Лондоне – 17%, в Стокгольме – 7,3%. Серологические тесты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Европе, США, Япон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чтобы выяснить, сколько людей было инфицировано. Их проведени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и в Р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RKI)

## Сотни корейских судов устроили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з-за водорослей

**Жарк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суще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о и внутри одной и той же страны. На днях в Южной Корее более 400 промысловых судов и катеров устроили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оспаривая район, где выращивают съедобные водоросли.**

Предметом спора стал расположенный у самой юго-запад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морской участок Маро,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между уездами Чиндо и Хэнам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м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самые большие в Корее плантации по разведению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мых в местной кухне красных водорослей "ким" (в Японии их называют "нори"). Площадь участка - 1370 гектаров, что примерно 1800 футбольных полей.

Если судить по продолжению сухопутной границы между двумя уездами, то 80 процентов участка Маро находятся в Чиндо и только 20 процентов - в Хэнаме. Однако, с начала 1980-х годов, когда разведение водорослей еще не было прибыльным делом, там создали свои плантации жители уезда Хэнам. По мере роста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и прибыльности данного вида аквакультуры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спор стал набирать обороты. По оценкам экспертов, масштаб оборота бизнеса в этом районе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6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около 5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от чего зависит жизнь более ста хозяйств.

Два раза в спор вмешивался суд, прибегая к временному решению, позволяя жителям Хэнама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на участках и дав жителям Чиндо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одить водоросли в другом месте.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срок действия так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истек, спровоцировав конфликт.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з сообщений полиции и СМИ,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жителей двух уездов произошло в четверг 10 сентября. Сначала жители уезда Чиндо, собрав сразу 170 промысловых судов, катеров и лодок, прибыли в спорный район, требуя возвращения "своих исконных мор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В процессе движения этой "эскадры" обо всем узнали жители Хэнама, которые мобилизовали 240 судов и катеров. В итоге, в районе Маро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400 судов. Дело дошло до ругани, поливания друг друга водой из брандспойтов и легких потасовок. В дело пришлось срочно вмешаться Службе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которая направила в район конфликта десять кораблей,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были на семи судах.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сл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ластей спорщиков удалось развести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К счастью, обошлось без жертв.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спор неизбежно продолжится. Жители Чиндо, если исходить из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деления мор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ют все основания требовать передачи им как минимум большей части района Маро, но в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инадлежит жителям Хэнама,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там почти сорок лет. Кроме того, семьи, которые заняты в разведении плантаций водорослей в Маро,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иначе зарабатывать себе на жизнь - у них нет своей земли, все было ориентировано лишь на водоросл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открылся новый паромный маршрут

11 сентября из бухты Ёнильман в городе Пхохан, что на юго-восто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шел в свой первый для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рейс паром "Eastern Dream". Он отправи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куда будет теперь ходить еженедельно.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ассажи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пока не открывается, потому перевозятся только грузы. Паром повез в Россию 20 единиц тяжелой техники и 60 поддерж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Тот же паром будет ходить и в Японию - до порта Майдзуру и обратно.

Мэр Пхохана Ли Ган Док, которы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ях прохода парома "Eastern Dream",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овый маршру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ревращение Пхохана в круп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Тувон Сансон", паром "Eastern Dream" будет совершать рейсы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из Пхохана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отход в 16: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а до Майдзуру - каждый вторник (отход в 18:00). Водоизмещение парома составляет 11 478 тонн, он 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480 пассажиров или 130 штук 20-футовых контейнеров, либо 250 автомобилей и 50 единиц тяжел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Средняя скорость парома 37 км/ч.

## В Холмск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Жителей Холмска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глашают на IV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Его открытие состоится 19 сентября в 12.00 на площадке у плавательного бассейна.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уже четвертый год радуется своим гостя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ю. Нынешний фестиваль приурочен к важному торжеству для каждого, ведь 2020 год – это год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дружеских держав –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В семье единой"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ль", солиста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етра Кана, ансамб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Ариран", воспитан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и ансамбля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Программой праздник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акже вручени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х писем за многолетний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дело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азвит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ройдет дегуст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угощений "Кулинарный корт",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ове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портивно-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в которых може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каждый и побороться за ценные призы. Фишкой IV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станет конкурс по скоростному поеданию пянсе.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ценный приз, сообщает МАУ "Холмск медиа".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 год добились качественных сдвигов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Сохранение «плоских» авиатарифов на моск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кончание перебивки главного пут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и запуск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в стране рельсобусов, продолж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етыре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ов, решение о выделении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н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Это одни из ключевых итогов развития сферы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Их озвуч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отче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годовым итогам работы в долж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ый вопрос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Для его реше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меняют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уделяя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авиаци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ремонту дорог. От этого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успешное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Год назад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однимали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билетов в Москву по «плоским» тарифам на лет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из отпусков, власти тогда организовали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Жителям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кже было проблематично попас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лечение и за другими социальными услугами.

–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адежную связь с материком, мы доби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рейса на Москву, увеличили количество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маршрутов, сохранили «плоские» тариф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мы начал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сеть советских аэродромов. В планах на этот год – обустроить посадочные площадк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Зональном. В 2021 году они появятся в Смирных, Поронайске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 Раньше нас воздушный транспорт очень выручал. Надеюсь, что скоро александровцы снова смогут летать, – сказ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талья Морозова. – У нас много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сел, где живут в основном пожилые люди. На самолете они смогут быстро добраться, к примеру, за каче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Перебив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олеи позволила запустить по Сахалину «Орланов» – это новейшие для страны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РА-3. Сейчас их три, еще столько же придут в область в этом году.

– Я каждый день езжу на ра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ельсобусе просторно, комфортно, летом работают кондиционеры, зимой – вагоны обогреваются. Раньше ездил на обычном автобусе и не знала, что есть такое счастье. Мало того, что это гораздо комфортнее, так еще в два раза дешевле, чем на автобусе. К тому же, я точно знаю, что никакие пробки не помешают поезду прийти на станцию вовремя,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Екатерина Стукова.

В сфере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тыре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ов.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куриль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олжны выйти два новых теплохода,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перевозить втрое больше пассажиров. А на переправе Ванино-Холмск в 2022 году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новые паромы, ч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грузо- и пассажирооборот в четыре раза. Вс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в един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схем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и на дорожный вопрос. Областным властям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передачи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ха. На ее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из бюджета страны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более 2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Свыш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ежегодно начн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на содержание трассы по более высокому стандарту.

Сре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которые раньше тратили на северную трассу, направя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емонт и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тметим, что с этого года начали уделя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держанию дорог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по повыш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 Более 10 тысяч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уже привит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 по иммунизации от гриппа среди дет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ейчас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Медики стараются вакциниров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юных жителей до сезонного подъем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острыми респираторными вирусными инфекциями.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вакцинопрофилактики призывают не бойкотировать прививочную кампанию, ведь в текущем сезоне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ая циркуляция гриппа 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 К сожалению, каждый третий родитель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вакцинации своего ребенка, – отмечает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Хегай. – Они забывают, что грипп – грозное заболеван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не только вызвать тяжелые осложнения, но и привести к гибели маленького пациента. Отказываясь от иммунизации, родители рискуют жизнью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смерть дошкольника от пневмонии, вызванной гриппом. Сейчас у сахалинцев еще есть время подумать, но затягивать не стоит. Иммунитет должен успеть 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до подъем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Приви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среди детей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7 сентябр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медики планируют вакцинировать 85,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6 месяцев до 17 ле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привито больше 10 тысяч детей. Прием детей ведется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области. Также процесс вакцинации налажен в детсадах и школах. Все, что требуется – согласие от зако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его на проведение инъекции и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Перед прививкой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одят осмотр ребенка, измеряют температуру. При наличи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вакцинацию отложат.

– Вакцинация – самая эффективная и надежная защита от гриппа, – отмечает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вакцинопрофилакт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Марина Бушкова. – У применяемой вакцины «Совигрипп» нет особых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Кроме того, детская вакцина отличается от взрослой тем, что не содержит консервантов и является более защищенной и адаптированной к организму. За вс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осложнения. Иммунитет после прививки формируется уже через 2-3 недели и сохраняется до года. Входящие в вакцину антигены не только защитят от гриппа, но и помогут избежать осложнений, а также повысят иммунный статус организма.

Кстати,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дети. Медики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ют пройти иммунизацию женщи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на 2-3 триместре беременности. Вакцина применяется та же, что и для детей и не может навредить здоровью будущей матери и ее малыша. Напротив, иммунитет, который сформируется в организме женщины, будет передан ребенку и защитит его от вируса в текущем эпидсезоне.

Южносахалинка Оксана и ее полуторагодовалый сын Дмитрий вакцинацию от гриппа прошли в числе первых.

– Прививку сделали ещ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осле планового приема у врача, – рассказывает молодая мать. – Я сама ежегодно делаю прививки. И обязательно вакцинирую ребенка. Стараюсь следовать всем рекомендациям врачей, чтобы сын рос крепким и здоровым. Прививку он переносит хорошо. Никаких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ов мы не заметили.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Одновременно медики рекомендуют проводить иммунизацию против пневмококковой инфекции. Это дает хороший результат, так как создается защита и от пневмонии.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ловить горбушу сетями

При этом рыбак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суточной нормы добычи – 3 хвоста на человека. Кроме того, на островах расширили перечень мест бесплатного вылова лосося – с 44 до 54.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открыли в Макаровском и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анее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в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живем на островах, поэтому к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е относимся по-особенному. Безусловно, этот вид промысла должен становиться доступнее, поскольку для жителей – это отличный способ пополнить свои запасы к зиме и отдохнуть на природе.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выдано более 7 тысяч путевок – было выловлено свыше 126 тонн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лосося,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обывать горбушу сетями следует по правилам, утвержденным приказом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Так, длина орудия лова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30, а высота 3 метров. Шаг ячеи – не менее 45 миллиметров.

– Один человек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одну сеть, установленную на удалении от берега не более 30 метров. Причем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орудиями лова на участке не должно быть меньше 100 метров. Допускаются только пронумерованные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ставные сети,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ван Радченко.

Отмети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ным текстом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рыболовства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бассейна, а также узнать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новых участков бесплатного лова горбуши можно по следующей ссылке. Нововведения вступят в силу с 21 сентября.

## Объявлены лучшие проекты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цепции нового облика 4, 7 и 8 микрорайонов жители города выбрали с помощью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нем по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12 сентября к церемонии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Приятно осознавать, что работа, которую мы начали еще в феврале, подошла к концу. Над концепциями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труди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оссии, Нидерландов и Японии. Всего – 5 коллективов архитектурных компаний. Вы проделали огромный путь – обсудили свои идеи с нашими студентами, организовали более 40 встреч с жителями,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выслушали замеча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скольку даже ремонт в квартире семья делает сообща. Вот и нам следует двигаться вместе, воплощая задумк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Автором идеи обсуждения концепций был губернатор. Участвовали в этом более 5 тысяч жителей. Коллеги

из Москвы нам сообщили, что такого всенарод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архитек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похоже, в России еще не проводилось. Здорово, что мы показали пример,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Лучшим проектом развития 7 и 8 микрорайонов признали работу «ЮНК», авторы которой ранее занимались обновлением жилого фонда в Москве. Концепц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среднеэтажную застройку. Это позволит сохранить вид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Кроме того, низкая плотность возведения жилых зданий даст солнечным лучам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роникать в окна новостроек. Особый акцент – на гармони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нутренних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Кроме того, в школах и детских садах микрорайонов предложено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При этом здания учрежд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для проектировщиков.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инициативам, соучаствующе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становится прикла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нечно, сейчас заложены только основы обновленных микрорайонов. Однако они дают вектор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уникального архитек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не, как архитектору,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наши предложения нашли отклик в сердцах горожан,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оектного бюро UNK Project Герман Гроше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жителей 4 микрорайона победителем признан проект консорциума Nikken Sekkei и ООО «ДАК». Архитекторы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пешеходную улицу, вдоль которой расположатся гостиницы, рестораны и кафе, а также бульвар. Жилые кварталы – не выше 8 этажей.

Во дворах не будет машин – только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Гостевые парковк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о внешнему периметру каждого жилого блока, а также подземные стоянки под домами из расчета – 1 машиноместо на квартиру. Помещения под магазины и другие услуги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на первых этажах домов,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по внешнему периметру кварталов.

– Спасибо з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ашей работы. Спасибо, что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лушать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и создать для них проект комфортн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пасибо за смелос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это пример го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будущего, – поделился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проекта Александр Крылов.

Отметим, на основе лучших архитектурно-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нцепций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работают проекты планировки территорий. Их также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бсудят на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ях с южносахалинцами.

##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готовятся к запуску нового линейного ускорител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мед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с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ми. Стоимость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около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его приобретени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Первая партия из десятков коробов с комплектующими для линейного ускорителя сегодня начала поступать из склада в лечебное помещение для монтажа. Установк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 уступает по сложности манипуляциям на нем. Все детали должны быть смонтированы с точностью до миллиметра.

– Линейный ускоритель помещается в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бункер, толщина внешних стен – 1 метр 20 сантиметров. Это необходимое требование при работе с радиоизлучающи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такого класса. Подготовка помещения ведется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Каждый этап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инженерами от фирмы-производителя.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работают мастера по электрооборудованию,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Сергей Старцев. Эффективность аппарата в лечении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проверена временем. Сахали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обрел первый линейный ускоритель еще в 2001 году. Это позволило внедрить технологии конформного облучения, при которой идет воздействие лучей только на опухоль, без повреждения окружающих здоровых тканей. В 2015 году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аппарат, сейчас производится замена одного из устаревших. Ежегодно лучевую терапию с помощью линейного ускорителя проходят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ладает не только более совершенным функционалом, но и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для пациентов.

– На старом ускорителе лучевая терапия проводится на фоне задержки дыхания. С новым аппаратом пациентам больше не придется этого делать, можно свободно дышать. Техника сама подстроится под дыхание человека, –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ая ради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Ирина Захарова.

Монтаж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алибровка каждой детали займет еще не меньше месяца. Инженерам предстоит по миллиметрам состыковать шеститонный аппарат с полом, с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Запуск линейного ускорителя планируется со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95세 한인 1세가 전한 '사할린 슬픈 역사' 풀다

청소년 역사소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 펴낸 김미승 작가여성 독립운동가 · 강제 징용 노동자 모티브로 전개청소년들에 뿌려줄 용기 전파... "그들 기억해야"

'뿌리는 한민촌에 머물면서 조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단한 지위를 가졌거나 부자들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겉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허름한 판잣집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그들의 가슴엔 조선 독립이라는 강물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본문 41~42 쪽 일부)위 지문처럼 일제 강점기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청소년 역사소설이 나왔다. 어두운 시대를 건너온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청소년의 시선에서 풀어내는데 주력해온 전남 강진 출생 김미승 작가가 2년만에 나라를 잃고 눈 시린 바다를 건너야 했던 디아스포라, 러시아 동쪽 끝 사할린에 첫발을 디딘 고려인들을 호호하고 있는 세번째 청소년 역사소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다른 판)가 그것으로, 조선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그리고 고려인 2세인 딸을 주인공으로 해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다. 여기서 검정치마는 조선 소녀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여성을 상징한다. 시간 배경으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해방까지로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있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청소년 소설이자 역사 소설 '저고리 시스템즈'를 펴내 주목을 받았던 저자는 이번 청소년 역사소설에서 일제 강점기 러시아에서 살아야 했던 고려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



사할린 망향탑에서 포즈를 취한 저자



김윤덕 할아버지(앞줄 우측)와 함께 한 저자(앞줄 좌측)

'저고리 시스템즈'가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만영이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인 '저고리 시스템즈'의 멤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구상을 하게 된 반면,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혁명가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인 김알렉산드라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노동자 김윤덕 옹으로부터 착상을 얻어 집필하게 됐다. 저자는 2018년 8월4일부터 8일까지 사할린 한인 협회 초청으로 그곳을 역사탐방하면서 폐허의 한 판광 언저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당시 95세의 김윤덕 옹을 만난 바 있다.조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하바롭스크의 학교를 졸업한 열다섯 살 뿌리(알렉산드라 세묘노비치 김)의 모습 속에 김알렉산드라의 꾀함함이 담겼고, 소년 탄부 김현도의 석탄물이 든 손끝에서 김윤덕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이 청소년 역사소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용기있게 살아가는 소녀

뿌리의 성장소설이자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오늘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로 이해하면 된다.줄거리는 푹푹하고 공부 잘하는 뿌리가 등장한다. 뿌리는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등상을 받지 못하지만, 철도국 통역관인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검정 치마를 입은 마트료시카'를 졸업 선물로 받는다. 블라디보스토크 여자사범 학교에 진학할 꿈을 꾸며 마음을 다잡지만,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풍파가인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군에 발각돼 사할린으로 끌려간 것이었다.

뿌리는 홀로 길을 떠나 사할린의 가와카미 탄광촌에 다니다. 그곳에서 고된 노동과 멸시 속에 살아가는 현도를 비롯한 조선인들을 만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조선에 대한 애뜻함을 느끼는 등 밀도높은 심리를 그려간다. 작가는 역사탐방을 다녀온 뒤 6개월 후 김윤덕 옹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필을 서둘렀다. 기획과 자료수집, 그리고 집필 마무리까지 1년 동안 작업에 매달렸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혁명가이며 여성 독립운동가인 김알렉산드라와 막장을 뚫고 피어난 역새풀같은 김윤덕 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트료시카'를 떠올렸고, 러시아 전통인형인 마트료시카는 뚜껑을 열면 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여러 개 들어 있어 마치 여러 명의 자신을 품고 있듯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 우리 청소년들도 뿌리처럼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김미승씨는 "한인 1세인 김윤덕 옹은 탐방 때 95세였다. 연로하신 연세에도 강제징용 당시의 상황과 해방 후 귀국 선을 기다리며 무국적자로 살아야만 했던, 사할린 동포들의 가혹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디아스포라가 돼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했던 사할린 한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부끄럽고 슬픈 역사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미승 작가는 2000년 계간 '작가세계'에 시가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 저서로는 청소년 소설 '저고리 시스템즈',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세상에 없는 아이', 시집 '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와 '익어 가는 시간이 환하다', 동화 '잊혀진 신들을 찾아서, 산해경', '서방바위와 각시바위', '상괘이와 함께 떠나는 흑산도, 흥도 여행', '소곤소곤 설화모리'(공저) 등이 있다.

(출처: 광남일보)

#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제정 추진

부산 기장군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조례안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영주귀국주민 대상 지원사업 및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작성하여 오는 28일까지 기장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장군에는 지난 2009년 1월 사할린한인 126명이 영주귀국 했으며, 2020년 9월 현재 107명이 거주하고 있다.기장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역사적 희생과 실항의 아픔을 겪어온 사할린한인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할린한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시스】

# КОНКУРС ФОТО И ВИДЕО КОНТЕНТА

в честь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 **ОРГАНИЗАТОР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 **СОДЕРЖАНИЕ КОНКУРСА :**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контент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пр.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ФОРМА УЧАСТИЯ :** Пост / Видео-пост
-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 Граждане РФ
- **КОНКУРСНЫЕ ТЕМЫ :**
  - 1) **Корея, которую знаю только я**  
Пример: Рассказ о Корее из личного опыта, не известный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опулярном ресторане, игре, культуре и пр.
  - 2) **Сравнение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Пример: Сравне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РК и РФ в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е (поп-музыка, кинематограф, сериалы, индустрия красоты и пр.), укладе быта (одежда, жилье, пища), обрядах (достижение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свадьба, похороны, поминки),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и т.д.
  - 3)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Мнение, либо идеи относительно областей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или взаимного влияния, который получен/может быть получен

● **ПРИЗЫ:**

| Номинация          | Приз                       | Примечание   |
|--------------------|----------------------------|--|
| 1 место            |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500 | по 1 чел.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для постов / видео-постов |
| 2 место            |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350 |  |
| 3 место            |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200 |  |
|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50  | по 2 чел.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для постов / видео-постов |

●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КИ:**

1. Опубликуйте в своих соц.сетях пост/видео-пост(объем не ограничен)
2. Поставьте следующие хештеги : #대한민국\_러시아\_30주년 #Korea\_Россия\_30лет #Korea\_Russia\_30year
3. Заполните анкету-заявку и отправьте ссылку до 30.10.2020г. на sakhalin@mofa.go.kr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 +7-4242-46-24-30)

● **ПРИМЕЧАНИЕ**

- ✓ При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полученных лайков или просмотров будут начисля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 ✓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работ не ограничено.
- ✓ Язык контента – русский или корейск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최대 12km종목에는 1999년생 이상 연령의 남성이 참가할 수 있다.

장애인 참가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1000m 종목에 참가하게 된다.

각 연령대별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우승자에게는 러시아 체육부 우승컵을 시상하고 경기 수상자들에게는 러시아 체육부의 메달과 상장을 수여한다고 사할린주 체육부 홍보국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Кросс н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 — 2020" пройдё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онно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е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19 сентября.

Глав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арад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в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9:30. Отсюда же в 10:00 будет дан первый стар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беге могут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наличии полиса страхования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и справки о допуске врача.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разбиты на возрастные группы и дистанции. 1000 метров смогут пробежать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2010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4 километра будут преодолевать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2000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а также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1999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старше. 6-километровую дистанцию смогут пробежать девушки 2000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Юноши 2000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а также женщины 1999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старше, будут бежать 8 километров. Максимальная, 12-километровая трасс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ля мужчин 1999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старше. Участник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а, смогут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1000 метров.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т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кажд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получают кубки Мин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изёры соревнований — медали и грамо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бедите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лучают кубк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а призёры — медали и грамот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Объявление

26 сентября в 11.00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 Ю.А.Гагарин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состоится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ый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и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Вас ждет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част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ыступление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сн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родном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роспись вееров; роспись корейских масок; корейское бумажное искусство ханджи; каллиграфия, а также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ирым.

## 광복절 행사에 초대

사할린 주민들과 섬 방문객들을 광복절 75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5주년,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합니다. 행사는 9월 26일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사할린 예술단들과 <에트노스>한민족 문화예술과 공연, 한민족 노래자랑, 다양한 공예 활동교실(부채 그림, 탈 그림, 한지, 한글쓰기 등), 씨름대회 등이 손님들을 기쁘게 해 줄 것입니다.

기념행사 조직위원회

Женщина 68 лет, проживающая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мужчиной 1944-1946 г.р. для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публику Корея.

Тел: 89242804045.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68세의 동포 여성이 영주귀국을 위해 1944-1946년생 남성과 만남을 원함.

전화 89242804045.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   |   |  |
|--|---|--|---|---|--|
| <p><b>Издатель:</b><br/>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br/>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br/>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br/>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br/>E-mail: skr@sakhalin.ru<br/><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br/>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br/>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br/>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br/>50 раз в год.<br/>Индекс ПР575<br/>Тираж 13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br/>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